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공항 안전 운영기준 위반”

국민권익위 의결…국가 잘못 첫 공식 인정

콘크리트 격벽·상판 등 포함 구조, 충돌 에너지 증폭 치명적 피해 유발…“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중대한 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국제 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인정, 국가의 잘못을 공식화한 첫 문서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무안 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 시설·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공항안전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족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법규상으로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RESA)에 포함되는 항행안전 시설로, 부러지기 쉬운 재질(Frangible object)이어야하고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 구 부속서, 법률 자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에 포함돼야 하

는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나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을 기초로 설치돼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해당 둔덕 자체가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흡수·완충하기는커녕 오히려 충돌 에너지를 증폭·항공기·탑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당 구역 길이를 기준 204m에서 199m로 조정했을 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저 재질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로컬라이저를 관련 기준에 맞춰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이탈 후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불법적으로 설치·관리된 ‘죽음의 몇’이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가 피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인연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였음을 국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을지고 오는 29일 참사 1주기 이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시설물 설계·시공·승인·관리 등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 결함(둔덕)을 비롯한 비행기 기체 결함·조류·관제 등 모든 사고 원인을 의혹 없이 조사할 것△국회와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이 보장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내년부터 둘째 출생축하금 20만원

광주 자치구 최대 금액…양육 지원 기준 완화도

광주 광산구는 202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부터 출생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한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 7월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산구는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출생축하금 기준 광주 자치구 중 가장 큼 규모다.

임정기 기자 jjh415@gwangnam.co.kr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거점소독 강화 23일 전남 장성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본격적인 철새 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 관계자들이 사료와 가축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전남 영암 농기와 나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전남 서해안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바다 내릴 전망이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바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다.

비는 24일 낮부터 차차 그지겠지만, 밤 사이 기온이 떨어져 일부 지역에 도로 살얼胡同이나 빙판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상층 5km 고도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 내려오면서 추위가 시작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영상 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고 낮부터는 3~7도에 머물며 춥겠다.

눈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무안·함평·영광·목포·영암 등 전남 서해안 인근 지역에 내리기 시작해 26일 오전까지 이어지

겠다. 예상 적설량은 1~3cm로 많지 않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진눈깨비 형태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

26일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로 평년보다 3~6도가량 낮겠다. 전남 서해안에는 1~3cm의 눈이 주기로 예보됐다.

이 기간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 속 2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풍랑·강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경계지는 “기온 변동 폭이 크고, 강추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며 “빙판길, 눈길 교통 안전,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항공·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음주운전 재판·누범기간에 운전대 잡으면 ‘차 몰수’

검·경 음주운전 근절대책…사망사고시 기준 조치보다 강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 인데도 재벌할 경우 차를 입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대검은 2023년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립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 대비 52.9% 감소 했으나, 재범률은 지난해(43.84%)와

2015년(44.42%)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더 대상을 넓힌 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법원 선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교통 사법에 대해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이 민속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비탕으로 구형해 법원에 요청한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 곳곳 병오년 첫 해맞이 행사 ‘풍성’

무등산·금당산·월산공원 등서 떡국 나눔 진행 소망 촛불 켜기·엽서 쓰기·풍물패 공연 등 다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광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뜻깊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23일 광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와 원봉사센터는 1월1일 오전 7시 무등산 너릿재 옛길 정상 체육쉼터 일원에서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구자원봉사센터와 동구 새마을회, 효신야학, 자비신

터 너릿재 유아숲공원, 옛길 정상까지 5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구는 같은 날 오전 7시 금당산 인공폭포 광장 일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서구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준비한 떡국과 쌀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며 시민들과 따뜻한 새해 인사를 나눈다.

남구는 오전 6시30분 월산근린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시작한다. 일출 전 풍물패 공연과 색소폰 연주, 마술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참석자들이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월산근린공원 정상에서는 병오년 첫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맞춰 해오름 함성 지르기와



2024년 1월 1일 광주 남구 월산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국악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남구 새마을회 주관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에서 떡국과 차 나눔 행사가 열리며, 남구는 행사장 주변에 80여명의

에서는 새해맞이 떡국·차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북구는 모범운전자회와 협력해 주정차 통제와 교통 안전에 강화할 방침이다.

광산구에서도 새해맞이 나눔 행사가 펼쳐진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산구협의회는 어등산 등산로 입구인 광주여대 주차장에서, 광산구 새마을회는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떡국과 음료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해 소망기원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행사장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